

**B<sup>n</sup> 대선주조**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대선주조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2016 사회공헌대상

2016 05+06 통권 2호

2016 부산체육 슬로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체육중흥을 위하여!

# 부산체육

2016 **05+06** | 통권 2호  
[www.sports.busan.kr](http://www.sports.busan.kr)



**16.9**

**순한시원**

대선주조 모델 박기량

벌꿀 36mg  
마테차 0.18mg  
함유

순한시원 16.9  
천연암반수 100%  
벌꿀 36mg · 마테차 0.18mg 함유

SINCE 1961  
MONDE SELECTION  
2016  
SILVER AWARD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해나간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 CONTENTS

## Hot Topic & Issue

- 04 이달의 현장 ①\_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09 이달의 현장 ②\_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People & People

- 14 주목! 이 선수\_진외런 그라운드골프 선수
- 16 이색 인터뷰\_손가는 수영 선수 가족
- 20 오월의 칼럼\_김창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 22 유월의 칼럼\_유명우 한국권투연맹 부회장
- 24 데스크 칼럼\_이성재 사무2차장

## Main Event

- 26 중인\_부산광역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
- 28 주안점\_부산체육인 신공항 유치 성공기원 방문
- 30 인물열전\_김마그너스 선수, 부산에 남아 꿈 키운다
- 32 Inside\_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외국어대학교 업무 협약식
- 34 특집 ①\_제11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 36 특집 ②\_2016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 38 이슈 ①\_제11회 여성생활체육대회
- 40 이슈 ②\_2016 부산오픈 챌린저투어 테니스대회
- 42 스포트라이트\_201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 44 5월의 스포츠\_
  - 제7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겸
  - 제29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금정 스포츠클라이밍대회

## News Briefing

- 46 체육정책\_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News

- 50 지역행사\_부산광역시체육회 구 · 군지회 행사
- 55 종목행사\_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행사
- 60 체육센터소식\_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발행일 2016. 6. 24.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위원 김정림(부산광역시소통기획담당관), 안창규(부산광역시체육진흥과장), 손준구(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김주혁(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우석봉(부산발전연구원 위원)  
 편집취재 이성재, 서원택, 임성하, 하니근, 김민지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tel 051. 500. 1300 / 500. 7900 fax 051. 500. 1309 / 505. 6306 www.sports.busan.kr  
 북구국민체육센터 tel 051. 365. 707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55번지 부산국민체육센터 tel 051. 243. 5959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로 150  
 디자인·인쇄 (주)세영애드인 tel 051. 636. 75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1  
 ※이 간행물은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부산체육**

2016 05+06 | Vol.02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체육중흥을 위하여





화합과 축제의 장!  
전국 동호인의 대화합 잔치!

# 2016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국민건강·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전 국민의 축제인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5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2001년 제주를 시작으로 이어진 대축전은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16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2개 분야 46개 종목에 약 2만여 명의 동호인선수단이 17개 시·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했다. 경기는 검도·배드민턴·국학기공 등 36개의 일반종목과 국무도·궁도·라켓볼 등 10개의 시범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 6개국 9개 종목에 220명의 재외동포와 한일 교류 10개 종목에도 200명이 참가해 친선경기를 펼치는 등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동호인의 친선과 대화합을 이루었다.



부산선수단기 수령



선수대표 선서

### 결단식 통해 부산선수단 필승의지 다져

이번 대축전은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치른 첫 전국 규모 대회였다. 그만큼 중앙 및 각 시·도의 체육회가 짧은 기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준비하였고 운영이나 결과 면에서도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슬로건인 '건강의 꿈 하나로, 서울의 힘 미래로'에 어울리는 체육, 문화, 관광, 지역발전까지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종합축제를 만들어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부산은 정식종목 31개, 시범종목 4개 등 총 35개 종목에 1,4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5월 27일(금) 오전 9시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는 정경진 부산광역시행정부시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위원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기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임원 및 참가선수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결단식이 열렸다.

정경진 행정부시장은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고 우의를 다지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마당이다.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해안수도 부산시민의 힘을 더 높여주시기를 바란다."고 결단식을 전했다.

이날 결단식은 1,400여 명의 부산 선수들이 펼치는 나홀간의 대장정을 힘차게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이 됐다. 결단식 종료 후 부산선수단은 서울 잠실로 이동해 오후 5시 30분부터 개최되는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가했다.



**우수한 성적 일군 부산선수단 화합상 1위, 질서상 3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행사이자 통합체육의 원년이 되는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은 같은 날 27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강영종 대한체육회장, 시·도 체육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회장, 시·도 종목별 선수 및 임원,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재외동포 선수, 지역주민 등 약 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서울 예술단 퍼레이드, 서울을 주제로 한 노래와 퍼포먼스, 가수 손승연·이용·서문탁 등이 참여한 식전행사와 17개 시·도 선수단들의 개성 넘치는 입장 퍼레이드로 대축전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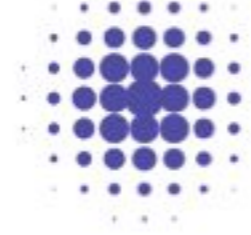
부산은 17개 시·도 및 재외동포 가운데 9번째로 입장했으며, 공기 비행선을 이용해 '부산광역시체육회' 현수막과 '스포츠 7330' 로고를 띄웠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불꽃축제를 연상시키는 '폭죽 퍼레이드', 'BUSAN WORLD EXPO 2030' 유치 홍보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로써 부산 선수단은 각종 체육·문화 행사를 널리 알리며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이미지를 잘 부각하여 서울시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화합상 1위, 페어플레이 정신을 대표하는 질서상 3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종목별 경기는 해당 경기장에서 26일(목)~27일(금) 양일간은 어르신 경기로, 28일(토)~29일(일) 양일간은 일반경기로 각각 펼쳐졌다. 폐회식은 모든 경기가 종료된 5월 29일(일) 14시 30분부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으며, 각 부분별 시상식 진행됐다.



**그라운드골프 부산 종합 1위**

나흘간의 대축전 경기 결과, 부산은 △그라운드골프 종합 1위 △배드민턴 종합무술, 국무도 종합 2위 △검도, 당구, 스쿼시,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줄넘기 종합 3위 △남자, 승마, 태권도 종합 4위 △수영 종합 5위 등을 안았다. 35개 종목 가운데 게이트볼, 국학기공, 스킨스쿠버 등 28개 종목은 각 부분별 개인 및 단체 수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부산은 그라운드골프가 종합우승을 차지해 큰 주목을 받았다. 평소에는 인조잔디에서 대회를 치렀으나, 대회 장소인 서울어린이대공원 축구장은 천연잔디여서 더욱 멋지게 경기를 치렀다. 대회 결과에 대해 "훌륭한 팀워크와 탁월한 선수배치 덕분"이라는 부산팀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부에서 남·여 준우승, 일반부에서 남자 준우승, 여자 우승, 장년부 여자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수상은 일반부 여자 3위(김점재), 장년부 여자 1위(진외련), 장년부 남자 3위(임경현)의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KOREA  
SPORT FOR  
ALL FESTIVAL,  
SEOUL 2016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시상식

일자 : 2016년 6월 8일(수) 장소 :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 부산







**해단식으로 대축전 마무리**

대축전에 참가했던 부산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수) 오전 11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해단식'이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는 박희재 부산시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한 김기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회원종목단체임원 및 선수 등 1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단식에서는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땀방울이 담긴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종목별 성적발표와 단기봉납, 입상종목의 상배봉납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대축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부산선수단은 화합상 1위와 질서상 3위에 대한 부상으로 자전거 30대를 받았다.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종합무술, 국수도, 검도, 당구, 스쿼시,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줄넘기 등 종합 입상한 종목에 대한 격려 시상도 있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대축전은 '보는 스포츠에 머물지 않고,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장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행복은 물론 소통과 화합을 직접 실천하고, 승부보다는 동호인 간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된 2만여 명의 대축전 참가 주인공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도 제17회 대축전 개최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정되었다.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종목별 성적**

참가 종목	경기 성적
검도	종합 3위
게이트볼	남자부 3위
국학기공	어르신부(개인전) 우승, 일반부(개인전, 단체전) 각 3위
그라운드골프	종합 1위
낚시	종합 4위
당구	종합 3위
배드민턴	종합 2위
스쿼시	종합 3위
수영	종합 5위
스킨스쿠버	개인전 금 1개·동 1개, 핀수영 100m(20대) 3위, 핀수영 100m(30대) 1위, 남자 일반 3부 무호흡잠영 1위
승마	종합 4위
씨름	단체전 3위, 50대 우승, 여자부 국화급 은메달
체조	어르신부 어르신전담지도자 1위, 일반부 에어로빅스체조 2위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종합 3위
육상	100m(60대, 70대) 각 3위, 100m(80대) 2위
자전거	MTV(남) 슈퍼그랜드마스터 3위, MTV(여) 1위
정구	어르신(남) 70대 2위, 80대 3위, 어르신(여) 60대 3위, 혼성부 3위
족구	일반부·50대부 3위
축구	장년부 3위
탁구	일반부(남자 30~40대) 각 3위, 일반부(남자 50대) 2위, 라지볼부(남자 65~69세) 1위, 그룹 3위, 라지볼부(여자 65~69세) 3위, 그룹 3위, 라지볼부(남자 70~74세) 1위, 그룹 3위, 라지볼부(여자 70~74세) 3위, 그룹 3위, 라지볼부(남자 75세 이상) 2위, 그룹 2위
태권도	종합 4위
테니스	남자어르신부 3위
풋살	중·고등부 각 3위
합기도	금 1개, 은 2개, 동 5개
줄넘기	종합 3위
궁도	노년부 1위, 3위
종합무술	종합 2위
국수도	종합 2위

**스포츠 새싹들의 꿈과 희망!**

**제45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1만 2,26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올해에는 승마 1종목이 신설돼 초등부 19개 종목, 중학부 36개 종목 등 모두 36개 종목 480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천혜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강원도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된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 금빛 물결 이론 우리 선수들

박규리(주례여중·15)가 육상 5,000m 경보 여중부에서 25분16초3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정상 자리에 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단거리 선수로 활동하다가 중학교 진학 후 경보 종목으로 전환한 박규리는 1학년 때 대회 준비 5개월 만에 출전한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연패에 대한 부담을 이기고 2위와 7초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또한, 수산항에서 열린 요트 중학부 단체전 결승에 출전한 부산팀 선수들은 충청남도예에 막판 역전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우, 김동욱(이상 해강중·14), 손지민(신도중·13) 등 우리 선수들은 늦은 스타트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후반 김동욱이 지능적으로 충남 선수들을 막아내며 손지민에게 길을 터줬다. 결국 손지민이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고, 이어 김동욱도 충남 선수들을 따돌리고 결승점을 통과해 우승을 확보했다. 이에 최정연 부산시요트협회 중학부 감독은 "충남이 준비를 잘해,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지만 선수들이 영리하게 경기를 잘 풀어 역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수영 플랫폼 다이빙 여중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정(사직

중·15)은 이튿날 수영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 여중부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또 전날 체조 에어로빅 3인조 초등부에서 금메달을 딴 차지원(신곡초·12)은 체조 에어로빅 개인전 여초부에서 우승하며 또다시 정상에 올랐다. 수영 스프링보드 3m 여초부에서 우승한 김승현(사직초·12)은 스프링보드 1m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경보와 요트를 포함해 금메달 6개를 수확한 우리 선수단은 29일(일) 금메달 8개를 추가했다.



## 체조 선수단, 이색 훈련법 눈길 끌어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초·중·고등학생이 함께하는 체조 훈련 시스템이 금메달로 결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 선수단은 대회 사흘째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체조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먼저 체조 마루 여초부에 출전한 김서현(청동초·12)은 14,700점을 얻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링 남중부에서 손종혁(부산체중·15)은 16,129점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도마 남초부에서 박정준(초량초·12)도 13,212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부산 영도구에서 진행된 초·중·고 체조 훈련 시스템 덕분이다. 3년 전 부산체육중학교가 다시 개교했고 청동초등학교에서 체조부가 생기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20여 명의 청동초, 부산체중, 부산체고 체조 선수들이 부산체고 체육 전용 체육관에서 함께 기량을 길러왔다. 이처럼 초·중·고 체조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시스템은 부산에서 유일하며 타 종목에서도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운동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위 시스템은 전용 체육관을 건설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체조 선수의 진학문제를 쉽게 해결하여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컸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이번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이란 결실을 거뒀다.



## 금 21개 부산 선수단, 두 계단 '점프'

또한 우리 선수단은 수영, 역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 권희준(용수초·12)은 자유형 200m 남초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배영 100m에서도 1분04초40으로 정상에 올라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윤희(반송초·13)는 수영 여초부 개인혼영 200m에서 2분22초64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으며, 여초부 접영 100m에서 금메달을 땀던 김윤희는 대회 2관왕이 됐다.

역도에서는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63kg급 여중부에 출전한 이수빈(부산체고·15)이 인상에서 69kg을 들어 올려 금메달을 획득했다. 용상에서 92kg을 들어 은메달을 추가한 이수빈은 합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마지막 날 부산선수단은 배드민턴과 수영에서도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먼저 배드민턴 여초부 단체전에 출전한 부산 선발전팀은 대회 결승에서 충북 선발전팀을 3-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나영, 김나정, 김서현, 김애린(이상 안남초), 권하원, 박주은, 이소민(이상 구포초)이 나선 부산 선발전팀은 1회전에서 경북 선발전, 2회전에서 전남 선발전, 준결승에서 강원 선발전팀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하여 금맥 캐기에 성공했다.

이로써 부산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1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1개로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금메달 15개로 종합 14위에 그친 부산은 올해 금메달 6개를 더 따내며 종합 순위를 두 계단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환희 & 아쉬움

부산선수단의 주목할 종목은 수영과 육상, 체조, 역도, 에어로빅 등이었다. 수영에서 8개, 육상에서 3개, 체조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역도와 에어로빅에서도 각각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에어로빅의 차지원(신곡초)도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반면 태권도와 유도, 복싱, 씨름, 레슬링 등 투기 종목에서는 모두 합쳐 1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남윤호(재송중)는 레슬링 중학부 그레코로만 63kg급에서 우승하였다. 한편, 축구·농구·야구·배구 등 구기 종목에서는 금메달이 나오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안연균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년간 열심히 훈련한 결과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소년체전이 배출한 스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 반드시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년체전이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는 야구 박찬호, 골프 박세리, 수영 박태환, 배드민턴 이용대, 레슬링 김현우 등이 있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코리안 특급'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1985년 제14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다. 박세리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를 호령했고, 소년체전 출전 당시 투포환 선수로 참가한 이색경력이 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종체벌로 리우올림픽 참가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박태환도 소년체전에 5번이나 출전하여 그 인연이 깊다. 도성초 5학년이던 2000년 제29회 대회에서 수영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2001년에는 자유형 100m, 200m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다. 대청중 3학년 때인 2004년 대회서는 자유형 200m와 400m 계영 4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의 목에 걸어 4관왕에 등극했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도 화순초등학교 5학년 때 28회 대회에 출전하여 남자초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그 후 화순중학교 시절에는 단체전 금메달을 2번 더 획득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현우도 2002~2003년 연이어 금메달을 땀다. 당시 같은 체급에서 대적할 선수가 없어 기권승을 거둔 일화도 있다.



### 부산 선수단의 선전에 큰 박수를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체전의 의미를 담고 두 선수가 손을 맞잡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번 체전은 '물과 해, 단단함과 부드러움, 음과 양'처럼 상반되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조화되는 모습을 엠블럼에 담았다.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배려하는 세상, 장애와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부산 선수단의 노고에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긴장감과 활력이 교차하는 경기장에서 함께 어울리고 땀 흘렸던 나흘간의 시간이 부산 선수단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바란다.







##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그라운드골프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된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부산 선수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위상을 드높였다. 수많은 주인공 가운데 그라운드골프 장년부(여)에서 개인 1위,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둔 장년부 진외련 선수가 이목을 끈다. 대축전 해단식에서 만난 진외련 선수에게 경기 참가 소감을 들었다. 응원군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축하해 자리를 빛내준 이날, 승부를 떠나 여러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추억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후문이다.

장년부(여) 개인 1위,  
종합 1위!  
그라운드를 누빈  
그라운드골퍼,  
장년부 진외련 선수

### 그라운드골프와 함께하는 활기찬 생활

진외련 선수는 아직도 대축전 대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한다.

"지난 4년간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팠는데,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그라운드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단체전, 개인전이 있습니다. 단체전을 할 때는 5명~10명씩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됩니다. 자연에서 팀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야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특히 자연에서 걷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60대, 70대, 80대에 선택해도 늦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전날에는 대회가 펼쳐지게 될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미리 가서 운동장 한 바퀴(8라운드)를 돌아봤다고 한다. 보고 나서는 평소 운동하던 사상구 운동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고.

"비록 잔디 코스야 좀 길고 지면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감이 왔습니다. 대회 날, 마음을 가다듬고 나름의 길을 생각해서 친 결과, 홀인 2개, 33타를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날 운도 많이 따라 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잘 친다고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 그라운드 골퍼란?

그라운드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 모아 재편성한 스포츠로, 간단한 규칙 덕분에 잠깐만 배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1983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10여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주로 실버레포츠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방법은 골프채와 비슷한 것으로 공을 굴려 쳐서 지름 36cm 홀에 최소 타수로 넣는 사람이 이긴다. 특별한 시간제한이 없고 심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왼쪽부터 진외련 선수 아들, 진외련 선수, 진외련 선수 며느리

### 모두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

그녀는 학창시절 즐겨했던 달리기와 평소 외향적인 성격을 회고하며 자신만의 비결을 전했다.

"지금 돌아보니, 학교에 다닐 때 달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향이 외향적이라 지금까지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공을 같이 치자고 하면, 집안일을 제쳐 두고서라도 발걸음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저는 한번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이고, 감을 빨리 익히기 위해 거의 매일 치는 편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실력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대회 당시에는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회 당시 성적이 무척 좋아 놀랐습니다. 옆 사람에게 제 볼을 잡아당겨보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체 550명 중에 1위, 장년부 300명 중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확률상 1/550과 1/300에서 동시에 1위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부산 선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쳤기 때문에 종합 1위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대축전에서 부산선수단이 화합상 1위, 질서상 3위를 수상한 데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다른 시합에도 도전하여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는 진외련 선수. 그녀는 끝으로 "제 몸이 다할 때까지 계속 칠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운동을 지인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라며 그라운드골프에 지극한 애정을 표했다.

# GROUND GOLF



#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손가은 선수 가족 지금부터 시작될 우리들의 금빛 이야기

지난 5월 31일 폐막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은 금메달 21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1개로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효자 종목으로는 수영과 체조가 꼽힌다. 부산 선수단은 수영에서 8개, 체조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들 중 금메달 3개의 겹경사를 맞은 가족이 있어 눈길을 끈다. 손태현·빈경자 코치 부부, 그리고 딸 손가은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 ● 꿈을 향한 전력질주

푸르른 녹음이 무성하던 6월의 초여름, 부산시체육회관에서 이들을 만났다. 부산체육중학교 손태현 코치와 청동초등학교 빈경자 코치는 딸 손가은 선수(사직중)와 함께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 이들 부부는 각각 손종혁 선수(부산체중)와 김서현 선수(청동초)를 지도해 황금빛 결실을 보았다. 손종혁 선수는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남자중학부 링에서 16.129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서현 선수는 체조 여자초등부 마루운동에서 14.700점을 얻어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다. 손가은 선수는 수영 여자중학부 플랫폼싱크로나이즈다이빙에서 김연정 선수와 함께 254.04점의 금빛 연기를 펼쳤다.

“손종혁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메달을 수차례 거머쥔 우수한 선수입니다. 타지방 선수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실력으로 대적할 라이벌이 없을 정도니까요. 링과 도마 종목에는 탁월한 편이었고, 금메달에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서현 선수는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오직 노력으로 지금의 결과를 이룬 경우다.

“서현이가 4학년이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서로 믿고 시작하기로 굳은 약속을 했죠. 훈련이 힘들어도 잘 참고 독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제주 대회에서도 땀은 은메달을 땀고, 올해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연성, 연기력, 순발력이 뛰어난 선수이기에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추가한다면 국가대표가 될 훌륭한 재목입니다.”

빈경자 코치는 “학부모의 긍정적인 마음과 선생님의 믿음에 선수의 열정이 더해져 지금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이라며 기쁨의 소회를 전했다. 청동초등학교 체조부는 창단 3년 만에 금메달 획득이라는 수확을 했다.

지도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과 함께 전해진 딸의 승전보는 이들 부부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로 기억된다. 다이빙을 시작한 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놀라움이 더욱 컸다. 파트너인 김연정(사직중) 선수에 비하면 미흡한 실력이라는 생각에 대회를 한 달 남겨놓고는 집중훈련에 돌입했다. 대회 전 3월에 있었던 ‘제주 배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봤던 터다. 아직 금메달을 땀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지만,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다이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상/손종혁 체조선수  
하/김서현 체조선수





운동 연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끝난 후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고생을 풀어주는 과정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수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면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선수가 힘든 연습을 마친 후에도 밝은 웃음으로 귀가하면 지도자로서도 뿌듯한 마음입니다.

● 연습 후 시작되는 진짜 교육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지도자와 선수로서 이들이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체조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다이빙도 체조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기본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가은이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쫓아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도 잡고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운동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터득한 거죠." 이들 부부는 선수에게 땀과 노력의 대가를 늘 강조한다. 운동에서 '우연한 결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욕심만 앞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도한다. 빈경자 코치는 선수를 지도할 때 마인드컨트롤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 심리적 안정은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산에서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과 동등한 선상에 오르려면 그만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습하는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끝낸 후 지도자와 선수가 대화를 통해 교류하는 순간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힘든 순간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경자 코치의 이 같은 생각에는 손태현 코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운동 연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끝난 후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고생을 풀어주는 과정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수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면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선수가 힘든 연습을 마친 후에도 밝은 웃음으로 귀가하면 지도자로서도 뿌듯한 마음입니다." 예전의 교육방식과 달리, 지금은 선수와의 대화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 선수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 훈련이 끝나면 매번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집으로 가는 시간 동안 선수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져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

손가은 선수가 처음부터 다이빙 종목으로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다. 부모님의 영향 덕인지 체조를 먼저 시작했다. "체조를 하다가 가은이가 다니던 사직초등학교의 교기가 다이빙이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가은이가 흔쾌히 다이빙을 하겠다고 했죠. 어릴 때부터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수영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잘했습니다." 체조에서 다이빙으로 종목을 전향하고, 늦은 시작만큼 더욱 많은 연습을 해야 했다는 손가은 선수는 빈경자 코치의 홈 트레이닝으로 큰 도움을 얻었다. 다이빙 연습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서 온 날이면 마사지와 찜질로 마음의 피로까지 녹여냈다. 반면, 아버지인 손태현 코치는 딸이 혹여나 해이해질까 하는 걱정에서 엄한 가르침을 고집했다.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인지, 손가은 선수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지금까지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부모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품다. 손태현 코치도 가슴에 품었던 꿈을 넘겨주기로 했다. "다이빙 종목은 선수생명이 짧은 편입니다. 20대 초중반이면 끝난다고 봐야죠. 그 전에 우리 선수와 가은이가 모두 태극마크를 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손태현·빈경자 부부에게는 태극마크만큼 간절한 희망이 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조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만 봐도 체조 경기장에 가면 관중석이 꽉 차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체조를 신기하다고만 생각할 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진행이나 점수집계 방식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체조인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작년에 신설한 '부산 꿈나무 체조 챌린지대회'는 그래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체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확대될 거란 기대가 큼니다." 20년 넘게 지도자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현장에서 부닥쳤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그들이다. 보람 있고 뿌듯한 순간도 많았지만 가끔씩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오해의 목소리도 들어야 했다. "학부모님들이 체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많았어요. 위험하고 키가 안 크는 종목이라는 오해가 가장 대표적이죠. 키가 작은 선수가 체조에 유리하고 실력이 뛰어나 선발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니, 앞으로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종목이었다면 우리 아이에게 절대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체조장 확보, 낡고 오래된 운동기구 교체 등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입을 모은 그들. 본인들이 체조인으로서의 길을 힘들게 걸어온 것과 달리, 후배들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운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들의 열정어린 모습을 마주하는 동안, 부산 체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체육에 대한 사랑으로 뚝뚝 뚫린 손태현, 빈경자, 손가은 가족이 지도자와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 날은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사회 전문체육의 육성 방향

현재 전국의 학교스포츠클럽은 2008년 안민석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하자 교육부를 통하여 각 시도에 파급되었다. 당시 스포츠클럽을 기존의 특활활동 또는 여가선용 정도로 생각하고 도입을 꺼리던 타 사도에 비해 부산시교육청 체육과에서는 학생 기초체력 향상과 체위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아이템(item)을 찾고 있던 중 안민석 의원과 이해가 맞아 떨어져 지금의 학교 스포츠클럽을 시작하게 되었다.

체육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체육(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가의 시대 상황에 따라 이 중 어느 한 분야가 우선시되던 것이 우리 체육교육의 현실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근대체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 1988년을 전후하여 전문체육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21세기에 들어와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면서 건강 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생활체육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3가지 영역은 서로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로 어느 한 가지를 인위적으로 우선하여 육성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분야의 협조가 없으면 동력이 상실되어 결국 기행학적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지난 세월에서 교훈으로 얻었다.

1970~80년대를 전후로 학교 학급의 학생 수는 1개 반에 50~60명으로 그곳에서 학생선수 지망생을 선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찬호 선수 같은 우수한 선수가 육성된 반면 동시대에 발굴된 많은 야구 선수들이 피지도 못하고 사라진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많은 선수들을 발굴은 하였으나 이들을 수용해 낼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선진화된 선발방식, 육성제도, 진로지도 등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떠한가? 학생 수가 1개 반 3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체육특기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격감하고 있고 일선의 지도자, 학교, 교육청, 경기단체, 체육회 전부 이구동성으로 걱정은 하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들 또한 TV를 통하여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는 장면이 열광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을 운동선수로 키우는 데는 주저한다. 성공한 박찬호보다는 실패한 많은 수의 선수들의 그늘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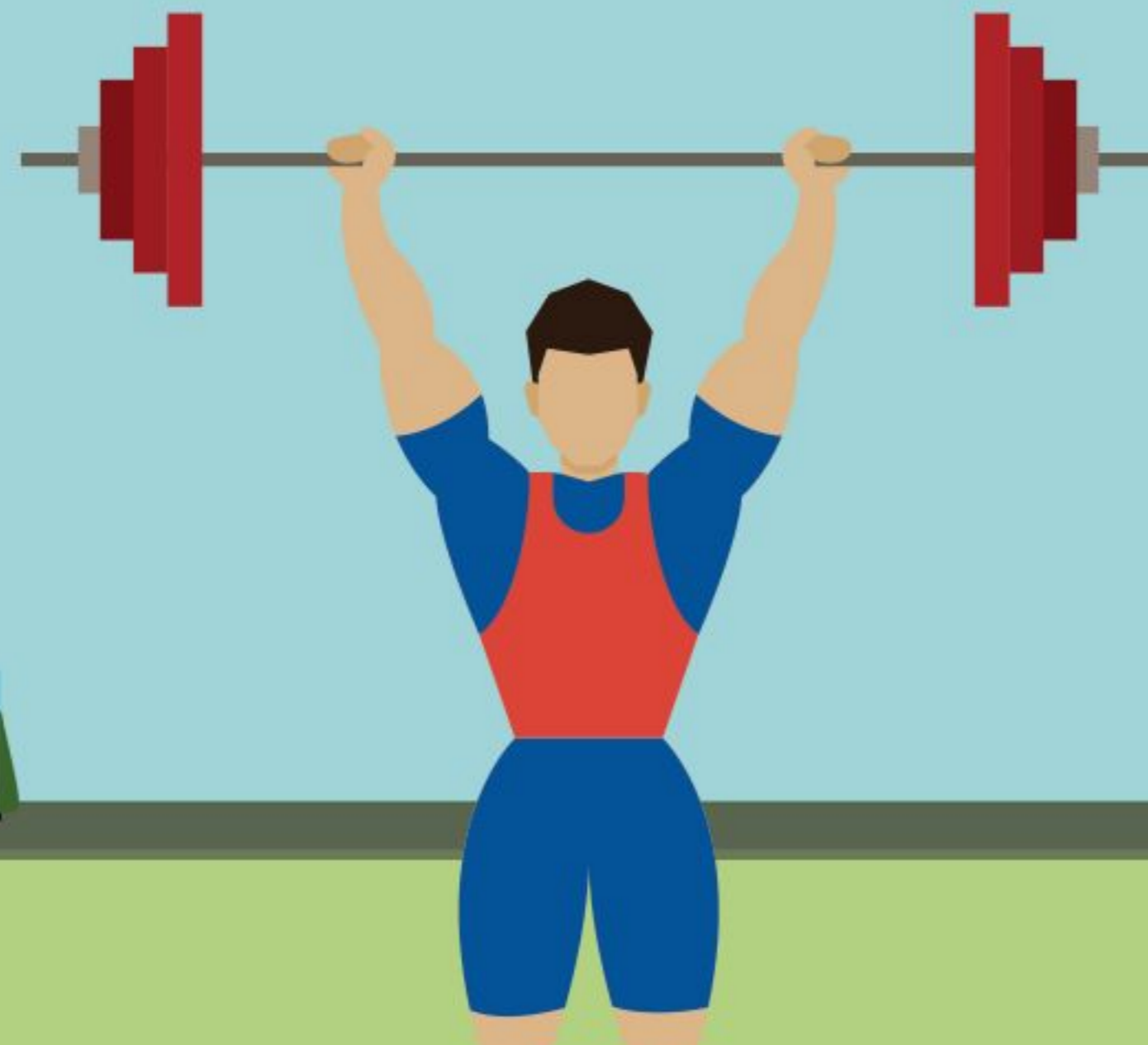
학생선수 육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2008년 교육청에서 최초로 학교스포츠클럽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차 한 가정 2명 이하 자녀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그때는 학생선수 수가 격감할 것이므로 선수 발굴 방식과 육성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전문체육 분야가 도태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에 가면 정규체육시간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고 방과 후에는 스포츠클럽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 배우고 익히는 풍경이 낯설지가 않다. 많은 학생이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하여 배우고 익히는 실천적 스포츠 환경이 타사도 보다 내실 있게 구축된 것이다. 부산 체육계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미래의 체육동호인 층을 확보하는 교육적 행위쯤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향후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 받아들이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학교스포츠키(mania)층이 확대 생산되고 그곳에서 체육영재를 발굴해야 먼 미래에 한국 체육이 이원화되지 않고 순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됨에 따라 학교체육에서도 학생선수 육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체육인이 많다는 데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체육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간의 통합이 다소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창시절 이원화된 체육시스템에서 각자 성장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현재처럼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함께 배우다가 한 사람은 스포츠를 직업으로 또한 사람은 취미로 선택했다면 스포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서로의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양대 기관이 통합하는데 접점을 쉽게 찾을지도 모른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적 수준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학교체육이 전개되고 전문체육이 육성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은 청소년 시절부터 체계화되고 교육화된 생활체육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 조기회 축구나 생활체육배드민턴 클럽은 아주 활성화되어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그곳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학창시절에 해당종목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성인이 되어서야 건강증진, 취미활동, 여가선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레슨, 동료회원, 전문서적 등을 통하여 스스로 학

습해서 참여하고 있다. 만약 학창시절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기량향상, 신체단련, 취미활동보다는 소통, 배려, 준법, 경기, 협동 등의 습득이 스포츠 활동의 궁극적 목적임을 훨씬 빨리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동호인 클럽 수와 인구가 늘어난 만큼 국민들의 신체건강지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에도 많은 변화가 왔을 것 같다. 더불어 전문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고민도 지금보다는 적으리라 생각된다. 미래사회에서 국가 수준의 체육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은 올림픽의 등위나 스포츠 동호회 참여 인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계화되고 생활화된 스포츠 경험을 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한 나무에서 자란 다양한 모양의 가지들은 각기 독립성을 가지되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무의 풍성함을 더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체육 선진국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체육교육의 이원 분리화보다는 일원 다양화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체계화된 교육경험을 가진 미래 체육동호인의 자변 확대를 꾀하고 그들 속에서 기량이 뛰어난 체육영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감한 정책적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부산시체육회뿐만 아니라 전 체육계가 학교체육활성화 중심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수립,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으로 구현해야 한다. 선수 부족만 탓하는 시간에 어떻게 체육영재를 발굴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문체육인이 많아지고 기량 연마보다는 스포츠 정신을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는 체육동호인 수가 늘어난다면 부산체육의 앞날은 승승장구하리라 확신한다.



**김창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체육과장, 장학관, 장학사 역임  
- 부산체육고등학교장 역임







# 한국 프로복싱, 강해져야 부활할 수 있다

지난 1970~1980년대는 한국 프로복싱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필자 역시 전성기 시절의 한국 프로복싱 역사의 중심 속에서 국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다. 그 시절은 세계타이틀매치가 열리는 날에는 거리가 한산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TV를 지켜보던 때였다.

한국 프로복싱, 그 전성기 시절이 다시 올까? 많은 복싱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분석도 하고 대책도 내놓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는 콘텐츠가 매우 다양해졌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와 시각은 더욱 다양해진 것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프로복싱의 위상은 현재 타 종목 스포츠에 비하여 한없이 초라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예전 전성기 시절 역사의 중심 속에서 활동 하였던 필자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복싱 전문가들이 위상 추락의 많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여전히 한국 복싱계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필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금이나마 전 복싱인들과 대중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한국 프로복싱 도약의 발판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모든 프로 스포츠는 그 중심의 맨 위에 협회나 연맹이 존재하여 해당 스포츠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 프로복싱 역시 지난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권투위원회(KBC)가 설립되어 한국 복싱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복싱인들은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현재 무려 4개의 협회 및 연맹(한국권투연맹 KBF, 한국프로복싱연맹 KPF, 한국권투협회 KBA)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싱인들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한국 복싱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필자를 포함한 모든 복싱인들이 이런 현실을 반성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흔히, 대중들은 프로복싱은 헝그리 스포츠라는 선입감을 갖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입감이나 의견에 대하여 단호히 'NO'라고 대답하고 싶다. 물론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의미의 헝그리 정신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프로복싱은 못 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프로복싱 흥행이 가장 왕성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최고의 선진국들이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도 매우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필자 역시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세계의 다양한 프로복싱 무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러한 선진국에서 유독 프로복싱이 인기 스포츠가 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큰 공통점은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기 있는 강한 챔피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복싱 경기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열광을 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모든 스포츠에서 우리나라와 영원한 라이벌격인 가까운 일본 역시 현재 8명의 세계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0~80년대 우리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시절에는 일본 선수들은 거의 한국 선수들의 먹잇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 역시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강한 챔피언들을 탄생시켰고, 전체적인 일본 선수들의 수준 역시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된 프로선수가 현재 약 2,000여 명이 있지만 한국은 200여 명 수준이며 그나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약 100여 명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서 연간 최고 수입의 선수는 지난 수십 년간 단연 프로복싱 선수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의 1위는 미국의 플로리드 메이웨더라는 세계적인 스타 챔피언이다. 또 다른 스타인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와의 세기의 대결에서 무려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전료를 받는 선수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필리핀에서 대전료 단돈 5만 원을 받고 프로복서 활동을 시작한 매니 파퀴아오 선수 역시 끊임없이 본인을 단련시켜 강한 선수가 되고 챔피언이 되어 한 경기당 수천만 달러를 받는 세계적인 대 선수로 성장했다.

필자 역시 지난 80~90년대 세계 챔피언으로 활동하였다. 그 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 프로복서들은 너무나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우리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기술적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선수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강한 선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만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익사이팅한 경기와 그들의 관심과 열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챔피언을 탄생시킬 수 있다.

필자는 한국 프로복싱 새로운 도약의 힌트를 김연아 선수로 정해놓고 있다. 대중들의 관심과 열광은 어떤 특정 스포츠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강한 선수가 되어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에게 열광하는 것이다. 우리 복싱인들은 이러한 강한 선수, 챔피언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 개최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 같은 전문적인 요소들이 부합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필자가 세계 챔피언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한국 프로복싱의 전성기 시절이었지만, 아울러서 부산 복싱 역시 전성기 시절이었다. 필자의 선배 챔피언인 김상현, 박찬희, 장정구 같은 전 국민적인 스타 챔피언을 탄생시켰고, 그 밖에 수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끊임없이 배출한 지역 부산 복싱계였다. 현재도 부산 복싱의 정신적인 지주격인 장정구 선배를 비롯하여 한국권투연맹 KBF 부산·경남지회 박용운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많은 부산 복싱인들이 통합하여 활발히 활동하며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제 한국 프로복싱계도 현재의 부산 복싱계처럼 전국적으로 전 복싱인들이 화합하여 통합해야 한다. 복싱인들 스스로가 우선 통합되어야만 한국 복싱이 강해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아울러서 우리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강한 선수들을 배출한다면 관심에서 떠나간 대중들을 다시 복싱 경기장으로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명우**  
- 한국권투연맹 KBF 부회장  
- 전 WBA JR.플라이급 챔피언







# 아드레날린

이성재 사무2차장

ADRENALINE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선수,  
그리고 운동 그 자체를 즐기는 체육인들은  
아드레날린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올림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정열을 대표하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여름의 정점인 8월 5일 개막하는 하계올림픽은 단연코 인류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28개 종목에 206개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펼칠 에너지의 향연이 진득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구기 종목의 부진으로 23개 종목에 200명이 채 안 되는 선수들이 출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 런던올림픽에 비해 50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4연속 톱10의 기록을 이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메가스포츠 이벤트는 지구촌의 산업과 상업자본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영세한 상업중심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오던 근세에 인류는 많은 갈등과 변화를 겪습니다. 기계와 분업화가 이룬 대량생산으로 인해 넘쳐나는 공급을 소화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더 중요한 수요 중심의 사고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허영을 부추기는 기호가치를 생산품에 덧입혀서, 소비의 기회와 여가시간을 주며 유혹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지성 Georges Bataille는 절약과 생산 축적이 오히려 인간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상실, 사치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언필칭 잉여 에너지와 재화를 소멸시키는 반전은 기부와 자선이며, 여기에 스포츠도 유쾌한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축적하기보다 소모에 가치를 뒤집는 발상은 기억과 이성을 중시하는 서양철학보다 망각과 감성을 추구하는 동양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듯도 합니다.

스포츠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희열과 환희와 좌절과 눈물이 있

습니다. 승부의 이면에는 고단하고도 치열한 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상대를 넘어서기에 앞서 자신을 이겨야 하는 냉혹함도 존재합니다. 혹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고, 일상의 해방구라고도 합니다. 스포츠만큼 인간의 동물적 투쟁본능을 일깨우고 잠재우는 양면성을 대변하는 존재도 없지 않을까요.

아드레날린은 호적수를 만나게 되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심장은 터질 듯하고, 골격근은 사냥감을 노리듯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인간의 활동력을 끌어올리는 자율신경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냉정하러니요. 이런 상태에서 즐기러니요. 이런 상태에서 룰을 지키고 판정에 승복하러니요. 지성과 이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어플레이를 외치고, 상대방을 존중하러니 참으로 어불성설 아닌 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칙과 권모술수가 준동하는 곳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고갈되면 우리의 몸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운동이 곧 인생인 전문체육선수에게 아드레날린은 승리를 부르는 명약이요, 투쟁적 의지를 북돋우는 활성제입니다. 자발적인 훈련과 노력, 상대와 자신을 잃는 영리함, 전세를 진단하는 예리한 판단력은 생리적으로 뇌와 근육에 공급되는 양질의 산소와 포도당에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이들의 운반책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늘어나 정작 필요한 시점이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선수, 그리고 운동 그 자체를 즐기는 체육인들은 아드레날린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 부산광역시체육회

### 제1차 이사회

지난 6월 15일(수)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 통합체육회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이사 25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체육단체 통합 추진경과 보고,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 향상 대책 보고, 부산광역시체육회 기본현황 보고 등이 진행됐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임명동의(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지명동의(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규정 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세입·세출예산(안)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통합은 구·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화합하여 통합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입임원에 대한 선임장이 수여되었으며, 올해 추진사업 계획이 앞서 보고되었다. 보고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 체육단체 통합 추진경과,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 향상 대책, 부산광역시체육회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우수 꿈나무선수 발굴·육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진국형 체육문화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학교체육 강화를 통한 대학·실업팀 연계 △학교체육의 전국체전 비중을 높이는 학교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우수선수 유출방지 및 실업팀 전력 향상을 위한 실업팀의 정예화 운영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한 전국체육대회 대비 역량 결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 △생활체육 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대회와 대학종합축제 한마당 개최 △부

산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하기 위한 부산생활체육축전 개최에 대한 계획 보고를 이어갔다.

심의안건으로는 현재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송미현 사무처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선임된 부회장에 대하여는 위원회별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위원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8개 위원회 위원장 지명동의안도 가결되었다. 체육과 운동의 범시민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와 지침이 되는 각종 규정제정안도 이날 가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280억 원 규모의 올해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다.

서병수 의장은 "통합은 부산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고 통합협회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화합하여 통합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고, 이사회의 역할도 커졌다. 그동안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주요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심의위원회 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안),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안), 구·군체육회 규정(안), 회원종목단체 규정(안),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안), 관리단체 운영 규정(안), 경기용기구 지원 및 관리 규정(안),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규정(안), 경기지도보조금 지원지도자 복무 규정(안), 관내 대학부 육성·지원 규정(안), 대회 참가 및 개최 보조금 지급 규정(안),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안),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 기금 관리 규정(안),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 규정(안), 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안), 사무처 운영 규정(안), 사무전결 처리 규정(안),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 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규정(안)' 등이다.





# 6 부산체육인 신공항 유치 성공기원 방문 9

**유라시아 육·해·공!  
트라이포트의 출발!**

지난 6월 10일(금), 가덕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박희채 시체육회 부회장, 송미현 시체육회 사무처장, 회원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의 체육인이 참가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유치 성공기원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산시 교통운영과 장현 주무관의 현장설명, 박희채 부회장의 결의문 낭독, 송미현 사무처장의 구호 제창, 풍선·종이비행기·에드벌룬 날리기, 기념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시체육회 박희채 부회장은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결의하고자 모였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모아 부산시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모든 평가항목은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따라 입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부산시민들의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60만 부산체육인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한 목소리로 외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가덕 신공항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기존 부산신항만 배후철도와 함께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며, 물류산업이 완성되어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된다. 세 번째, 장애물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공항이며 연계성을 확보하는 공항이 된다. 김해공항은 국내선과 중·단거리 위주의 국제선으로 운영하고, 가덕 신공항은 활주로 1개만 건설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로 송미현 사무처장은 24시간 허브공항·안전한 공항·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염원하면서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로! 가덕도로! 가덕도로!", "가덕 신공항 부산에서 유치하자! 유치하자! 유치하자!"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행사는 종이비행기와 에드벌룬을 날리면서 마무리됐다.



# 2018년 평창의 희망 한국 크로스컨트리 기대주 김마그너스 선수, 부산에 남아 꿈 키운다

지난 5월 2일 시체육회에 김마그너스 선수가 내방했다. 그는 지난 2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금메달 2개(크로스컨트리 프리 10km)와 은메달(크로스컨트리 클래식) 1개를 따내 평창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 2015~2016 시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으며, 2016~2017 시즌 스키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 실업팀 창단, 많은 관심 필요

2016 동계청소년올림픽 스키에서 2관왕에 올랐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대주인 김마그너스는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부산체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부산에서 아이스 스키 대학팀이나 실업팀이 없다고 한다.

그는 "경기도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 선수로 뛴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다. 부산의 훌륭한 스키 선배들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로 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부산에 스키 실업팀을 창단해 줄 것을 피력했다.

송미현 사무처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대주인 김마그너스 선수가 다른 시·도 선수로 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산에 실업팀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그가 부산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부산시청이나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C r



왼쪽부터 김동준 사무처장, 김마그너스 선수, 박찬호 트리아슬론연맹 전무이사, 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S S



### 태극마크 달고 활활 날기를

김 선수의 부산연고 유지를 위해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는 최소 4명의 선수가 필요하다. 시체육회와 스키협회는 선수 수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마그너스 선수 외에 부산 출신인 '박상범' 크로스컨트리 선수를 영입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부산 선수들로 영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김마그너스 선수는 노르웨이로 다시 출국했고, 현지에서는 축구·사이클·수영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통한 연습으로 몸을 만들고, 내년 2월 전국동계체전 때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윤설호 스키협회 코치는 "김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다관왕 가능성이 높고, 국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로 개최되는 스키월드컵에서도 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김마그너스 선수 수상 내역

2016	제2회 릴레함메르 동계 유스올림픽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 크로스 프리 금메달
2015	스타크래프트 주니어 컵 바이애슬론 17세 부문 우승 제9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고등부 복합 금메달 제9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고등부 프리스타일 15km 금메달 제9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개인 15km 금메달 제9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고등부 클래식 10km 금메달
2014	노르웨이 오슬로 스키 페스티벌 크로스컨트리 2위 크발포스 스프린터 바이애슬론 2위 노르웨이 동부지역선수권대회 바이애슬론 1위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등부 복합 금메달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등부 프리스타일 10km 금메달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개인 12.5km 은메달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스프린터 6km 금메달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등부 클래식 5km 금메달
2013	노르웨이 스키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15세부 클래식 스프린터 금메달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등부 복합 금메달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등부 프리스타일 10km 금메달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등부 클래식 5km 금메달

u n t r y





좌/정철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제2부총장  
우/송미현 시체육회 사무처장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난 5월 18일(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본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관심 제반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등의 교류와 시설·장비의 교류, 양 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교류, 지원 및 교육협력, 그 밖의 양 기관의 발전 및 상호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이번 협약은 시체육회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상생협력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체육 상생발전에 힘 모아**

이번 협약식에는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 정종욱 운영부장, 정석원 운영과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철호 제2부총장, 김기범 행정관리실장, 정용각 사회체육학부 교수, 안창규 사회체육학부장이 참석했다.

송미현 사무처장은 "평소 체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산외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자원의 교류 협력을 권장하고 새로운 부산체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향후 부산시민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철호 제2부총장은 "3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부산외대가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학교는 신설된 체육관과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에게 체육지도를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체육 부분에서만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호발전과  
체육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외국어대학교  
업무 협약식**

협약식 후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피트니스장, 펜싱장, 체육관 등을 방문하여 종목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재 양성의 요람**

부산외대 체육부는 체육특기자의 효율적 관리와 훈련 지도를 위해 1992년 2월 신설되었다. 체육특기자 활동지원 및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체육특기자는 육상(중·장거리)과 배드민턴의 육성특기와 펜싱, 볼링, 정구, 역도, 수상스키, 골프, 에어로빅스, 사격, 태권도, 유도 등 일반특기로 분류됐다.

장학특기인 육상부는 1983년도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국제, 국내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수차례 거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바 있다. 배드민턴부는 1984년도에 창단하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아'와 세계선수권 우승 기록이 있는 '김지현' 선수를 비롯하여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다. 이어서 1990년도에 사회체육학과를 신설하면서 일반특기생인 볼링, 골프, 수상스키, 펜싱, 정구, 사격부 등을 창단했다. 부산외대는 미래 선도형 융합 신기술의 로봇, 스마트 차량, 에너지 기술개발 등 산학 공동연구 개발 및 수익창출을 위한 미래융합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밖에도 동남권 지역산업체의 생산 동력산업인 전력산업과 관련된 기초인력 양성의 교육기관으로서 동남권의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고 미래 ICT 기반 전력산업 현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자원의 교류 협력을 권장하고 새로운 부산체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향후 부산시민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 어르신들의 건강 축제 한마당

# 제11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시체육회는 지난 5월 4일(수) 부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외 4개소(부산아시아드보조경기장, 을숙도축구장, 실내체육관보조A·B구장)에서 '제11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군체육회 및 해당 종목 협회 체육 동호인 1,50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에어로빅스체조, 그라운드골프, 국학기공 등 총 7개 종목으로 펼쳐졌다.

### 개회식 통해 1,500명 참가 어르신 격려

사직 실내체육관 본 구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권오성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박재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전광우 동래구청장, 이종철 남구청장, 박현욱 수영구청장, 송숙희 사상구청장, 정태룡 연제구 부구청장, 천만호 동래구의회 의장, 주석수 연제구의회 의장, 박희재 부산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 박진배 시원소주 대표이사,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7개 종목별연합회장 및 사무국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 축제 한마당을 격려했다.

서병수 부산시체육회장은 "제11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희재 생활체육위원장과 각 종목별 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하신 동호인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서병수  
시체육회장의  
대회사



선수대표선서



### 종목별 최고 어르신상 13명 시상

선수대표 선서에 이어,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종목별 최고 령자에 대한 최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축구(남)=김부부(기장군, 41년생), 배드민턴(남)=김석규(동래구, 35년생), 배드민턴(여)=최점아(부산진구, 38년생), 게이트볼(남)=차석봉(해운대구, 26년생), 게이트볼(여)=이가와(연제구, 27년생), 탁구(남)=병창선(동래구, 36년생), 탁구(여)=이화영(동래구, 36년생), 에어로빅스체조(남)=김문오(강서구, 36년생), 에어로빅스체조(여)=박경순(연제구, 32년생), 그라운드골프(남)=김원섭(영도구, 26년생), 그라운드골프(여)=송금자(영도구, 31년생), 국학기공(남)=현기승(남구, 30년생), 국학기공(여)=조재임(금정구, 32년생) 등 7개 종목 남·여 어르신 13명에 대해 기념품을 전달했다.

### 화창한 날씨 속에서 7개 종목 경기 진행

이번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어르신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종목을 선별해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에어로빅스체조, 그라운드골프, 국학기공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그라운드골프는 구·군 대항전으로, 에어로빅스체조와 국학기공은 구·군별 단체경연으로, 축구·배드민턴·게이트볼·탁구 등 4개 종목은 구·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 Health Festival

### ◎ 경기 결과

종목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축구	남구	북구	부산진구, 사상구
배드민턴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게이트볼	서구A	중구A	기장B, 금정B
탁구	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연제구
에어로빅스체조	수영구	강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그라운드골프	금정구	해운대구	사상구, 북구
국학기공	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은빛 요트,  
부산 바다를 수놓다!’

## 2016년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부산광역시와 부산세일링연맹은 지난 5월 5일(목)부터 5월 8일(일)까지 ‘2016년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 해양스포츠 중심지로서의 부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세계 수준의 선수 양성, 국가 경쟁력 함양 계기 마련을 위해 열렸다. 2006년 ‘부산컵 국제요트대회’로 시작하여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부산의 요트 역사를 널리 알리고 부산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에 충분했다. 해외 참가자들에게는 오륙도·해운대·동백섬·누리마루를 연계한 국내외 최고의 해양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본·투자자들의 투자 및 산업기술 유치 홍보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 해양도시 위상 드높이는 국제대회로 발돋움

송양호 시해양수산국장은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올해 14개국 75개 팀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로 거듭났다. 우리 부산은 해운대, 동백섬, 광안리와 같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해양도시이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운촌, 북항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 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좋은 성적 거두고 세계 요트문화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하는 멋진 대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박경조 대한요트협회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국제 수준의 경기장으로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와 같은 바다 활동에 대한 도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부산은 국제적인 해양스포츠의 문화 도시, 축제 도시이며 요트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요트인들은 높은 물결이 일어나도 바람이 불면 도전정신으로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이며, 거친 바닷바람을 연인처럼 느끼며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분들이다. 바람과 파도를 가르는 요트들이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 경기의 매력을 만끽하며, 시원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 순풍과 함께 펼쳐진 바다 위의 레이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등 총 14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스키피미팅, 인쇼어 레이스로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 OPEN CLASS에서는 IRENE(한국) 1위, SAMBA(러시아) 2위, FORTUNA II(한국) 3위에 올랐으며, ORC CLASS에서는 MALOLO(일본) 1위, SONIC(한국) 2위, VIKRA(한국) 3위에 올랐다.

### 부산 뉴산업&뉴비전 발판 될 것으로 기대

프랑스팀은 “부산의 높은 빌딩과 그 위에 있는 구름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다.”라며 부산의 정취에 만족해 했다. 또한, “남자 선수들에 비해 힘이 부족하여 힘든 점도 있지만, 하고 나서는 재미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한 다섯 명의 여자 선수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아이리스팀은 대회 출발 전, 소품과 춤으로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번 국제적인 해양스포츠 대회를 통해 부산은 도시 브랜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대회에 참가한 세계적인 요트인들은 부산 일원의 수려한 풍광과 아름다운 해안선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해양레저와 해양스포츠산업 시장 개척 계기를 마련하는 등 부산의 뉴 산업&뉴 비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세계 최고 선수들의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부산 위상 제고에 활력소가 되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에서 부산의 해양스포츠가 브랜드 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성 동호인들의 스포츠 축제 여성생활체육대회가 11회를 맞았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교실과 클럽활동을 통해 꾸준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여성들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여성 생활 체육 대회

### 여성 동호인의 활력이 활짝 제11회 여성생활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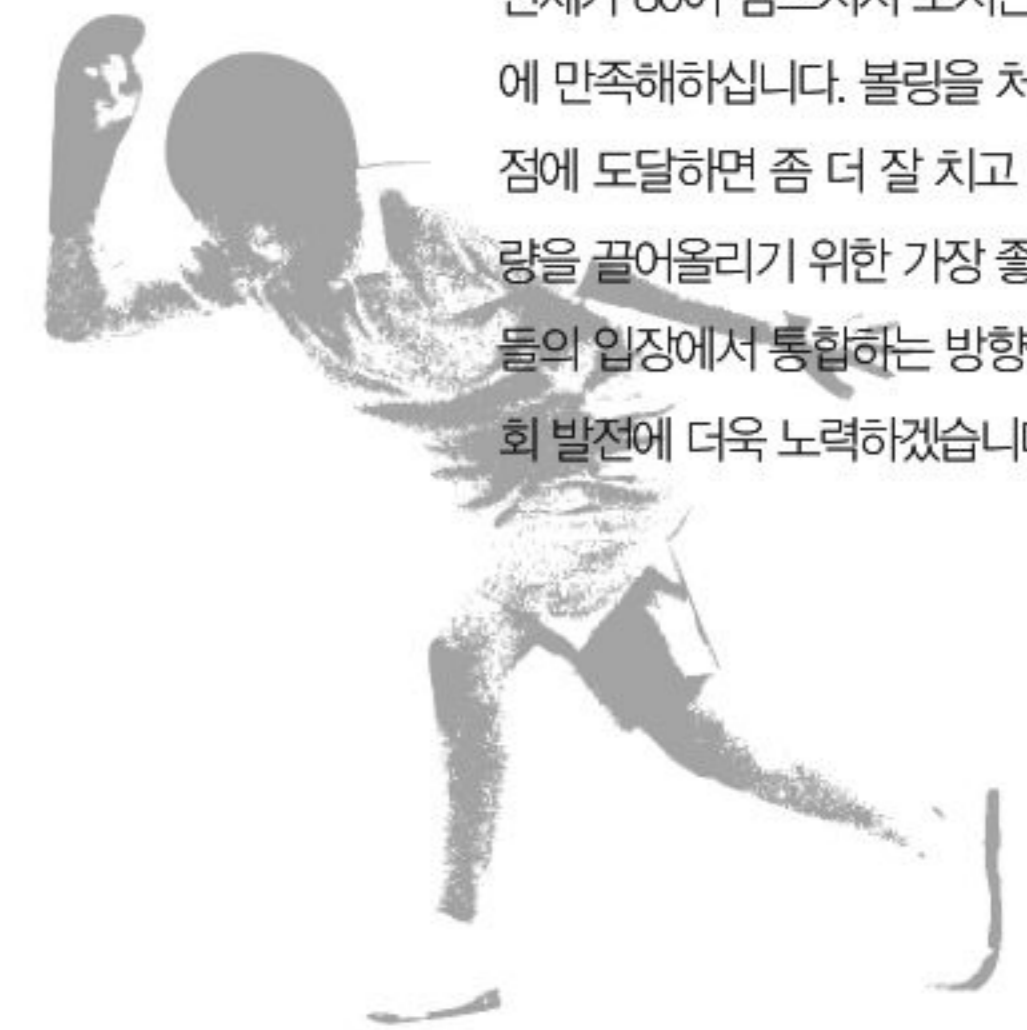
#### 7개 종목, 구·군 명예 걸고 대항전 펼쳐

지난 6월 17일(금) 부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부산아시아드 볼링장, 사직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 6개소에서 구·군 여성 동호인 대표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 테니스, 배구, 탁구, 국학기공, 체조, 볼링, 배드민턴 등 총 7개 종목에 참가한 여성 동호인들은 구·군의 명예를 걸고 대항전을 펼쳤다.

개회식에서 정경진 행정부시장은 "여성생활체육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여성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진정한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회가 여성 동호인들의 따뜻한 정과 건강한 활력으로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 선수를 격려했다.

#### 활력 넘치는 여성동호인들의 체육 이야기

대회장마다 넘치는 에너지만큼, 시합을 벌이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선수들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여실히 뽐내며 꾸준히 쌓아온 기량을 펼쳐냈다. 승패를 떠나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참가 소감을 들어봤다.



영도구  
탁구선수

#### STORY ①

이번 대회는 핸디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치는 선수를 선발하여 영도구 선수 12명이 7회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에도 참가하는데 그 성적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올해 성적이 좋은 팀들은 내년 대회에서 예산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적을 보고 추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감선미 이사

#### STORY ②

현재 구·군 볼링연합회에서 각종대회를 개최해서 동호인 우수 선수를 발굴합니다. 저희 중에는 오래 계신 분들이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수 선수들은 여성생활체육대회, 부산생활체육대축전 등 대회에 참가하는데 부산의 볼링 종목도 통합이 되면 전국체육대회에도 동호인들이 참가해서 축제의 장처럼 만들어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여성들의 실력 차이는 있지만, 남성들의 실력은 거의 비등(6:4)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체육으로 하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생활체육인들도 즐겨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열정으로 치시기 때문에 만족해하십니다. 볼링을 처음 배우고 실력이 향상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좀 더 잘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의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향을 구축하여 부산시통합볼링협회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식 챔피언 콘스탄틴 크라브칙

## 월드투어대회로 비상을 꿈꾸는 2016 부산오픈 챌린저투어 테니스대회 출발!

2003년 5회 대회부터 ATP(세계여자프로테니스협회) 챌린저 국제대회로 시작, 올해로 14회를 맞는 '부산오픈 챌린저투어 테니스대회'가 지난 4월 30일(토)~5월 8일(일) 스포원 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총 32개국에서 123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120여 개의 남자챌린저투어대회 중에서도 상위급에 속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국내 19명, 해외 104명 등이 참가해 단식 59경기(예선 28, 본선 31), 복식 18경기(예선 3, 본선 15) 등 총 77경기를 치렀다.

단식 준우승 다니엘 에반스



복식 우승조 샘 그로스(좌), 레안더 파예스(우)

### 테니스 동호인의 애정에서 출발

대회의 시작은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MF)에 직면하여 테니스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종목의 경기가 취소되면서 침체에 빠져들어 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부산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 1998년에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한 후 이듬해 '99 부산오픈 남자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주니어 선수 및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에 목적을 두고 1999년부터 시작한 테니스대회는 한국 테니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들이 뜻을 모은 데서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한국 테니스 프로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즉, 1999년 제1회 대회(국내대회) 출발 당시 국내 랭킹 1위에서부터 36위까지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서, 대한테니스협회 최고 등급인 2등급 인준을 받아 우승점수 400점을 부여하는 국내 최초의 경기력 향상금 지급 대회로 출발했다. 이후 모든 국내대회들이 상금(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모델이 됐다.

### 아름다운 볼, 그리고 이야기

김기천 시간강체육국장은 "매년 만물이 생동하는 봄소식과 함께 국제스포츠행사의 서막을 여는 매우 뜻깊은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면서 국내외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비중 있는 국제테니스대회로 성장함으로써 국제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선수 여러분 모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국내외 테니스 팬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관전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화합과 우정도 돈독히 다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챌린저 컵 들어 올린 콘스탄틴 크라브칙

단식 결승전에서 콘스탄틴 크라브칙이 영국의 다니엘 에반스(97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2-0(6-4, 6-4)으로 제압하고 부산오픈 단식 정상에 올랐다.

게임 스코어 3-3으로 팽팽하게 이어지던 첫 세트에서 크라브칙은 상대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고 자신의 서브게임을 착실한 디펜스로 지켜냈다. 이후 게임을 주도하기 시작해 5-3으로 게임 차를 벌리며 선전해 6-4로 승리해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세트에서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게임스코어 3-3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치다가, 크라브칙은 무서운 뒷심과 집중력으로 에반스를 6-4로 몰리치며 우승했다.

단식 우승자 크라브칙은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그동안 친절을 베풀어 주신 대회 관계자들과 부산시민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부산을 찾겠다."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용두산 공원  
날아오른 '인간새'

# 2016 부산국제 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



지난 5월 13일(금)과 5월 14일(토) 양일간 용두산공원 야외 특설경기장에서 '201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5개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폴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호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에서 7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대회 우승자 최예은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선수 전원이 출전했다. 대회 첫날에는 만 20세 이하 주니어부 경기가 펼쳐졌고, 둘째 날에는 여자부·남자부 경기가 열려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부산호텔에서 흥성화 부산시국제관계대사, 김무성 국회의원, 김은숙 중구청장, 최영규 부산시의원, 박희재 시체육회 부회장, 최명희 부회장, 송미현 시체육회 사무처장,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박재경 BNK 부산은행 부행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 개회식'이 진행됐다.

김기천 시건강체육국장은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는 국내 유일의 야외경기 대회이자 부산만의 특화된 육상경기대회로, 매년 국내외 우수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여 국제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선수들 모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국내외 육상경기 팬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관전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화합과 우정도 돈독히 다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머무시는 동안 젊음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의 부산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올해로 국제대회에 4번째 참가하는 부산대학교(4학년) 한두현 선수는 "올림픽 기준 기록인 5m 70을 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최대한 기량을 발휘토록 하겠다. 연습 때 항상 자신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대회 결과, 5m 30을 날아오른 그리고예프 세르게이(카자흐스탄)가 우승, 5m 20을 성공한 올 조이(미국)가 2위, 한두현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4m 30의 기록으로 베넷 에이프릴(미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만의 특화된  
육상경기대회



남자부 3위  
한두현 선수

# pole vault





암벽을 타고, 한계를 넘어!

## 제7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겸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금정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지난 5월 7일(토)~8일(일) 양일간 부산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인공암벽장에서 '제7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겸 제29회 부산광역시장배 금정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2016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251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세부종목으로 난이도 경기와 속도경기가 남녀 초등부-저(1~3학년), 초등부-고(4~6학년), 중학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됐다. 이 대회는 스포츠클라이밍과 고산 등반 등 모든 산악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보이다가 7년 전 낭가파르바트 등정 후 하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여성 산악인 고미영 씨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린다.

### 한계에 도전하여 승패를 겨루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손동규 선수(부산)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권유로 클라이밍을 시작하였다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클라이밍의 묘미는 마지막에 걸었을 때다. 이때 가장 보람되고 희열감을 느낀다. 같은 루트를 등반하더라도 오르는 방법에 따라서 어려운 정도가 다르다. 마지막까지 오를 실력이 되려면 3~4년간 아주 열심히 하면 누구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은 된다."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온 이민영 선수(고2) 또한 "처음에 아버지가 취미생활로 하시다가 한 달 뒤부터 같이 따라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다. 오늘 대회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7년 반 동안 다져진 실력으로 평소 운동하는 것처럼 즐길 계획이다. 클라이밍의 가장 큰 묘미는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스포츠클라이밍 알기

스포츠클라이밍은 암벽등반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별개의 장르로 독립시킨 클라이밍의 한 형식이며, 인공으로 만들어진 실내-외의 벽이나 볼더 등을 무대로 기량을 겨룬다. 최근 인공 암벽등반을 즐기려는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악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시설을 늘려가는 중이다.

### 속도경기 결과

#### >> 여자중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충남	김란	온양신정중학교
②	서울	주혜원	신도림중학교
③	경북	손승아	포항창포중학교

#### >> 여자고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대구	김서현	남산고등학교
②	부산	고정란	대명여자고등학교
③	전북	박도연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 >> 남자중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대구	최준석	매호중학교
②	광주	조상현	송원중학교
③	광주	박성현	월계중학교

#### >> 남자고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서울	이승범	한양공업고등학교
②	제주	이용수	제주고등학교
③	전남	서동진	목포고등학교

### 난이도경기 결과

#### >> 여자초등부(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부산	장나현	금명초등학교
②	경기	김채영	금파초등학교
③	경남	이진아	화정초등학교
④	경남	황연지	황산초등학교

#### >> 남자초등부(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전북	추지현	군산소룡초등학교
②	경기	김동혁	매현초등학교
③	경기	정유진	매현초등학교

#### >> 여자초등부(고)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충남	정지민	온양천도초등학교
②	경기	임강윤	연동초등학교
③	광주	정예진	용두초등학교

#### >> 남자초등부(고)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충남	임재준	온양중앙초등학교
②	충남	전유빈	거산초등학교
③	경북	기태호	경주금장초등학교

#### >> 여자중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서울	서채현	선유중학교
②	충남	김란	온양신정중학교
③	대구	최지수	노변중학교

#### >> 남자중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경기	최민서	까치울중학교
②	대구	최준석	매호중학교
③	광주	박동건	유덕중학교

#### >> 여자고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서울	이가희	한광고등학교
②	경북	배지원	포항동지여자고등학교
③	전북	박도연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 >> 남자고등부

순위	소속시도	이름	소속학교
①	경기	이민영	이의고등학교
②	서울	신유관	한양공업고등학교
③	강원	이성수	원주공업고등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News Briefing 코너는 부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주요 체육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문화올림픽을 위한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본격 추진

1

### 2017년까지 강릉 올림픽 파크 내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올림픽 문화유산을 창출하기 위해 강릉 올림픽 파크 내에 '올림픽아트센터'를 건립한다.

'올림픽아트센터'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기념 공연·전시 등 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올림픽 이후에는 각종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와 영동·영서·동해권역 공연 및 전시 등을 개최해 강원도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 및 강원도민의 문화·예술 서비스 허브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 총 47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신축하는 대공연장(1,000석)을 비롯해 기존 강릉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마련하는 소공연장(380석), 전시관 3개소(948㎡), 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2017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강원 지역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강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고 전했다.

## 장애인체육, 미래의 주역을 만나다

2

###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서 개최

장애인체육 미래의 주역들이 꿈을 펼치는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5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17개 시·도 선수 3,000명(선수 1,640명, 임원 및 관계자 1,360명)이 참가했고 선수들은 초등학교부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구분되어 총 15개 종목에 출전했다.

대회 종목은 육성종목과 보급종목으로 나뉘는데, 육성종목은 골볼과 보치아수영·육상·탁구 등 5개 종목이며, 보급종목은 배드민턴·배구·농구·볼링 등 10개 종목이다. 육성종목은 장애인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의 종목으로서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전략적 종목이며, 보급종목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대중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된 종목이다.

개회식은 지난 5월 17일(화) 강릉 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공식행사와 문화행사의 구분을 없애고 참석자의 눈높이에 맞춰 열렸다.

문체부 담당자는 "스포츠는 장애인의 삶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장애 학생들이 이번 대회와 같은 대회를 통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패럴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꿈나무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탄에 작은 체육관 건립한다

3

### 여러 종목 스포츠 지도자도 파견

부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수혜국 중 가장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속한다.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총 7번의 아시안게임에 연속으로 출전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예리사 의원의 제안으로 부탄 선수단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부탄의 부족한 스포츠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종목별 지도자 파견과 작은 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시행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9일(월), 체육관 건립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탄의 체육정책과 기반시설 조성 등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기관인 '부탄올림픽위원회(BOC)와 협약서 체결'을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7일(금) 부탄 팀부시의 사업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작은 체육관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부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5월 10일(화) 복싱 감독을 부탄에 파견하였으며, 농구 코치는 파견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목의 스포츠 지도자 파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정책은 작은 체육관 건립과 지도자 파견을 연계하여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년 전부터 시작된 부탄 내 한국 드라마와 K-POP 한류를 스포츠 한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e)스포츠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

4

### 2016 가족 이스포츠 페스티벌, 5월 7~8일 용산 광장에서 열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이(e)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5월 7일(토)~8일(일) 양일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야외광장에서 '2016 가족 이(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가족 이(e)스포츠 페스티벌'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롭게 꾸며졌다. 또한 가족이 함께 게임과 이(e)스포츠를 건전한 여가문화로 즐기고 가족 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양일간 야외 광장에는 히트(히트, 벅스)와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라이엇게임즈),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Hearthstone: Heroes of Warcraft,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프렌즈팝(NHN) 등 컴퓨터(PC) 게임 부스와 모바일 게임 부스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또한 가상현실기(VR)와 각종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최근에는 이(e)스포츠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e)스포츠가 온 국민, 온 세대, 온 가족의 건강한 여가문화이자 한류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베트남서 '2016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열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저작권 발전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6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양국 저작권 분야 정보 공유·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센터를 설치하고 베트남 정부 및 현지 저작권 기관과 협력하는 등 현지 저작권 인식 제고 및 합법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양국 저작권 발전 방향 모색'으로 양국 정부기관과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베트남 진출 한국 콘텐츠업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FTA 체결에 따른 양국 저작권 정책과 산업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베트남 FTA가 발효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 분야 합의를 이행을 하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유해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한다

#### 2016년 6월~10월, 공공체육시설 유해성 조사 실시 및 개·보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 조사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면 교체에 이은 후속 조치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교육부

### 가정의 달 5월, 3대가 함께 학교 체육 예술로 소통·공감

#### '효' 실천하고 가족사랑 분위기 확산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마련

교육부장관 이준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인성덕목 '효'를 실천하고, 조부모·부모세대와의 공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기업·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였다. 먼저,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3대가 함께 야구,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는 2016년 KBO 올스타 프라이데이'에 참가사연 공모를 통해 3대 100명을 초청하며, 올스타전은 3대 가족 입장 시 일반석을 30% 할인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K-League)은 지난 5월 마지막 주말 11경기에 3대가 함께 입장 시 입장료를 30% 할인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본 행사는 초·중·고등학교에 많은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3대가 스포츠를 계기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참가자의 시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예술 동아리가 문화융성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술 공연을 통해 효 사상을 고취시킨다. 6월 마지막 주에는 가조중학교(경남 가창) 관악반이 중심이 되어 가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관악단 연주, 댄스, 음악극, 남대전고등학교(대전) 예술동아리가 학교 강당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위한 감사의 편지 낭송, 민요, 관악, 세대 간 소통 퀴즈를 통한 세대 공감 행사를 치른다. 학교 체육 문화예술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주요한 콘텐츠가 되므로 앞으로도 정부부처·지역사회·기업 등과 협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적 체험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우석대 태권도 특성화사업단, 교육부 '최우수사업단' 선정

#### 태권극 창작 프로젝트 활동으로 신한류문화 확산에 기여

우석대학교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최우수특성화사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5일(목)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의 특성화사업단을 평가해 발표한 248개 사업단 중 유일하게 국가 지원 유형의 예체능 분야 최우수사업단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한 특성화사업 첫째 '지역 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된 바 있다. 위 사업단은 사업단 선정 이후, 교과 및 비교과를 융합한 'T-E 태권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 등 태권극 창작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태권도를 주제로 하는 신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T-E 태권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은 대한민국의 건국신화를 환상적인 판타지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태극기의 문양인 태극(음과 양)과 건곤리(하늘, 땅, 물, 불)의 4괘를 등장인물로 선과 악을 표현한 공연이다. 한편, 우석대 영유아특성화사업단도 교육부가 선정·발표한 우수사업단에 선정됐다. 본 사업단은 '차세대 휴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 환경 취약 영유아 통합지원 인재양성 사업단'으로 아동발달검사 등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확대와 전문적 재능기부로 사회적 역할에 기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10개 지역 15개 기관 209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 진행과 중국·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발달검사와 보육 서비스 지원 활동을 펼쳤다.





# 구·군 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 중구체육회 이사 정기회 및 단합행사



중구체육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4월 23일(토)에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섬진강 유역에서 2분기 '중구체육회 이사 정기회 및 단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된 중구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이사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단순한 여행을 벗어나 전통 문화유산, 고지적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문화의 이해와 국토 사랑을 함양하는 테마기행으로 진행됐다.

## 서구체육회

### 서구협회장기축구대회



서구체육회(회장 박극제)는 지난 5월 5일(일) 구덕운동장에서 8개의 클럽, 200여 명의 축구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서구협회장기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우승-토성클럽, 준우승-황호클럽이 각 순위를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서구축구동호인 상호 간 존중과 미덕,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서구협회장기배드민턴대회

같은 날, 부산여중에서는 5개 클럽 25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모인 가운데 '서구협회장기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됐다. 동호인들은 그동안 클럽활동을 통해 꾸준히 다져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 동구체육회

### 2016 동구체육회 선진 체육시설 견학



#### ▶ 동구체육회 임원 선진 체육시설 견학

동구체육회(회장 박삼석)는 지난 5월 14일(금)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동구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경주시에 위치한 선진 체육시설을 탐방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시설에 대한 탐방뿐 아니라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몸으로 선진 체육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체육회 통합 이후 처음 마련된 단체 일정에서 '선진 체육시설 견학'의 의미도 되새기며,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을 함께했다.

### 제1회 동구청장배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

이어서 지난 5월 28일(토) 부산역 광장에서 '제1회 동구청장배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부산시 중·고등부 각 20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 ▶ 농구대회 고등부 경기장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또한 예선전이 끝난 후에는 참가선수 및 농구대회를 관람하던 시민들과 함께 3점슛 이벤트 경기를 진행하여 소소한 즐거움도 선사했다. 경기가 끝난 후 관람 시민들과 참가선수들은 '청소년 여가 기회 제공', '시민 참여 및 볼거리 제공', '건강증진 활성화 방법'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영도구체육회

### 제8회 영도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 ▶ 유소년축구 경기장면

영도구체육회(회장 어운태)는 지난 5월 29일(일) 영도마린축구장과 영도환경사업소에서 9개의 초등학교(영도초, 청학초, 남항초, 상리초, 청동초, 태종대초, 동삼초, 봉학초, 봉삼초)와 7개의 중학교(해동중, 동삼중, 영도중, 부산남중, 영선중, 신성중, 태종대중)가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영도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각 학교 대표선수들은 팀의 화합과 협동심을 보여주며 다져온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고, 내빈들 또한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했다.

## 부산진구체육회

### 2016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

부산진구체육회(회장 하계열)는 부산진구민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28일(토) '2016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본 대회는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종목은 6km와 12km로 나뉘었고, 코스는 BNK어린이놀이동산-산림욕장-바람고개(6km 반환)-선암사-구 양묘장 앞(12km 반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은 자신의 건강과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깨끗한 공기 와 자연 경관을 느끼는 행복한 경주를 펼쳤다.

### 부산진구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이어서 지난 5월 29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부산진구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열려 동호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동래구체육회

### 2016 동래구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



▶ 이진복 국회의원, 전광우 구청장 외 참석 내빈

동래구체육회(회장 전광우)는 지난 4월 30일(토)부터 5월 1일(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 금정실내체육관에서 16개 클럽, 약 70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동래구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배드민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됐다.

### 2016 동래구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 테니스협회 이종윤회장님과 팀이제라의 우승기념사진  
이어서 지난 5월 1일(일)에는 화명생태공원테니스장에서 약 40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동래구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동래구 생활체육 동호인 간의 친목도모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 남구체육회

### 2016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남구체육회(회장 이종철)는 지난 5월 22일(일) 백운포체육공원 외 4개소에서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검도, 야구, 족구,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등 10개 종목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회 통합 이후 처음으

로 치러진 행사이기에 동호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대회였다. 총 3천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평소 체육활동을 통해 갈고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기회가 됐으며, 더불어 동호인과의 소통, 조직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 제29회 오륙도사랑 걷기대회



#### ▶ 오륙도사랑 걷기대회 개최식

이어서 지난 5월 28일(토) 옹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제29회 오륙도사랑 걷기대회'가 시민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기점으로 이기대 순환도로를 따라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지나 백운포체육공원까지 길게 이어지는 6.5km 코스를 걸으며 화창한 날씨를 만끽했다.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대회를 위해 코스 지점마다 거리공원 등 즐길거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노년층 부부와 집안 3대가 모두 참석하는 가족들이 많아 이목을 끌었다.



# 구·군 체육회 소식

## 북구체육회

### 제16회 북구협회장기 춘계배드민턴대회



북구체육회(회장 황재관)는 지난 5월 15일(일) 강서체육관에서 6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북구협회장기 춘계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많은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서로 경쟁하였으며, 경기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를 위한 유익한 대회가 되었다.

### 제1회 북구협회장기 무에타이대회



이어서 지난 5월 21일(토) 북구 태한무에타이 체육관에서 8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북구협회장기 무에타이대회'가 개최됐다. 처음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에게는 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해운대구체육회

### 제35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기)는 지난 4월 24일(일)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제35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는 축구 동호인의 유대감을 높이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해운대구축구협회 소속 9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우승=장산 축구회, 준우승=신도시축구회, 공동 3위=우2



#### ▶ 입장식

축구회·해동축구회가 각 순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2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족구대회



#### ▶ 백선기 회장의 표창 수여

이어서 지난 5월 1일(일)에는 '제12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족구대회'가 해운대구 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축구 대중화,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 기풍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 2016년도 해운대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 ▶ 해운대구체육회 임원 단체 사진

이어서 5월 2일(월) 해운대구청에서 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해운대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위촉장 수여 및 경과 보고와 함께 제1호~17호(안) 해운대구체육회 제·규정 제정의 건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비트로배 겸 제17회 국민생활체육 해운대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 ▶ 김수현 회장 시상식 장면

이어서 지난 5월 8일(일) 기장실내체육관(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는 '비트로배 겸 제17회 국민생활체육 해운대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을 통한 체력·기술 향상과 더불어 동호인 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를 위해 열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16팀, 905명이 참가한 본 대회 결과 1위=청산클럽, 2위=동백클럽, 3위=동해클럽이 각 순위를 차지하였다.

### 해운대구체육회 출범식 및 초대회장 취임식



#### ▶ 초대회장 취임식 장면

이어서 5월 18일(수)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엘리트 체육을 맡아온 해운대구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했던 해운대구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해운대구체육회 출범식 및 초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체육회 이사, 회원종목 단체장, 동체육회장, 생활체육교실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 사하구체육회

### 제1회 사하구체육회 클럽대항테니스대회



사하구체육회(회장 이경훈)는 지난 5월 14일(토) 을숙도 테니스장 외 보조코트에서 '제1회 사하구체육회 클럽대항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선수들은 그동안 클럽활동을 통해 꾸준히 다져온 솜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이는 등 각자의 실력을 점검해보였다.

### 제9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지난 6월 8일(수) 제주도에에서 '제9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가 개최됐다. 본 대회는 금정구와 기장군 두 팀 60명이 참가하여, 단체 전국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를 변형한 신종 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나 체력소모도 적고 규칙도 비교적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 금정구체육회

### 금정농협 조합장배 겸

### 제21회 금정구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금정구 체육회(회장 원정희)는 지난 4월 24일(일) 약 7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금정농협 조합장배 겸 제21회 금정구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입장식에서는 각 클럽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축제의 장을 이루었으며, 많은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다.

### 제5회 금정구 유관기관 체육대회



이어서 지난 4월 30일(토) 오룡동 인조잔디구장에서 '제5회 금정구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금정구체육회 주관으로 금정구 관내 11개 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가하여 족구와 미니 축구경기를 펼쳤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멋진 경기를 펼친 결과, 금정구 유관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 강서구체육회

### 제9회 강서구체육회장기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



지난 6월 12일(일) 강서 근린공원에서 '제9회 강서구체육회장기 종목별동호인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수영 외 10종목의 동호인들은 종목별 단

체복을 맞춰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년간의 노력의 결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 동호인들은 생활체육으로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 연제구체육회

### 2016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우준)는 지난 5월 25일(수) 사직아시아드시티에서 부회장, 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5월부터 구청장기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체육행사와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제21회 연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이어서 지난 5월 29일(일) 동호인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정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1회 연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 전 축하공연으로 태권도협회의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의 시범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동호인들의 화합과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 제20회 연제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이어서 지난 6월 12일(일) 부산교육대학교 테니스장에서 20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제20회 연제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



## 구·군 체육회 소식



했다. 경기결과로는 우승=월드메르디앙(청)클럽, 준우승=한새벌클럽, 공동 3위=연신(청)클럽, 법원A클럽이 차지했다. 그리고 최우수 선수는 월드메르디앙(청)클럽 양광조 선수, 우수선수는 한새벌클럽 박동규 선수가 수상했다.

### 제9회 연제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



이어서 지난 6월 12일(일)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약 1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연제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우승=하늘마음클럽, 준우승=마고전사클럽, 3위=온천천광장클럽, 장려=솔라휴먼클럽이 수상했다.

### 수영구체육회

#### 2016년 상반기 수영구청장배 대회



수영구체육회(회장 박현욱)는 지난 5월 22일(일) 수영구민체육센터 외 종목별 지정장소에서 4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수영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종목은 4개 종목으로 테니스, 탁구, 족구, 게이트볼이었다. 이번 대

회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동호인의 경기력과 결속력을 강화시킨 자리였다.

### 사상구체육회

#### 2016 사상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춘계대회



사상구체육회(회장 송숙희)는 지난 4월 24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16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 1위(구청장기 우승) 이지스클럽, 2위(연합회장기 우승) 동주클럽, 3위 부산핀클럽, 4위 성동클럽, 5위 사상클럽이 차지했다.

#### 2016 사상구청장기 테니스·축구 게이트볼·야구·족구대회



이어서 5월 1일(일) 삼락생태공원에서 '2016 사상구청장기 테니스·축구·게이트볼·야구·족구대회'가 개최됐다. 경기 결과 테니스 △금배조 우승 해남클럽, 준우승 청구클럽 △은배조 우승 해남클럽, 준우승 한결클럽, 3위 테사랑클럽 △동배조 우승 두레클럽, 준우승 한결클럽, 공동 3위 삼락클럽, 강변클럽이 차지했다.

#### 제4회 사상구체육회장기 어르신체육대회

이어서 5월 18일(수) 삼락생태공원에서 제4회 사상구체육회장기 어르신체육대회가 개최됐

다. 대회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3개 종목으로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동호인의 경기력과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 기장군체육회

#### 기장군생활체육인대회 개최



기장군체육회(회장 오규석)는 지난 5월 1일(일) '기장군생활체육인 볼링·검도·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했다.

#### 제16회 초중고 어머니배구대회



이어서 지난 5월 21일(토) '제16회 초중고 어머니배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동호인 간의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했고, 수준 높은 팀들이 다수 참여해 각 팀의 기량을 발휘하며 실력을 점검해 보았다.

## 회원 종목단체 소식

### 부산광역시검도협회

#### '제1회 전국실업검도대회' 참가

부산새빛검도팀(감독 강덕래) 선수 7명은 지난 5월 12일(목)부터 5월 15일(일)까지 총 4일간 청주시 장애인스포츠클럽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했다. 참가종목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었으며, 선수들은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전력점검 및 타 시·도팀 우수선수 전력분석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됐다.

### 부산광역시골프협회

#### 2016 박카스배 SBS GOLF 전국 시·도 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참가



부산광역시골프협회(회장 김중웅)는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16 박카스배 SBS GOLF 전국 시·도 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양일간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렸으며, 18홀 2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동아제약과 SBS 골프채널이 2005년부터 12년째 주최하고 있다. 미래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주역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매년 국내 골프 꿈나무들이 꼭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대회로 꼽힌다.

###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

#### 제19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국학기공대회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회장 박명옥)는 지난 5월 21일(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선수 및 임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9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국학기공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민족 고유의 심신단련법인 전통종목 국학기공 대중화를 통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문화 창조를 그 목적에 두어, 동호인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부산광역시궁도협회

#### '2016 궁도팀 전지훈련' 돌입

부산광역시궁도팀(감독 장오현) 선수 7명은 지난 5월 12일(목)부터 5월 14일(토) 총 3일간 평창 대관정에서 열린 '2016년도 궁도팀 전지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은 기초체력 훈련과 조직력 강화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을 통해 2016년도 각종 전국대회와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선수들의 체력훈련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회원 종목단체 소식



##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 '제8회 대한체육회장배 대회' 참가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이길상)는 지난 5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양일간 청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대한체육회장배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부산 선수단에서는 단체전 3팀 30명, 개인전 10명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단체상:장려상(북구, 금정구, 기장군) △개인상:우승=손정자(금정구), 준우승=김승자(북구), 장려상=구희덕(금정구), 이성우(사상구)를 수상했다.



##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

### 제49회 미스터&미즈 피트니스 부산선발대회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회장직무대행 이호열)는 지난 5월 22일(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미스터&미즈 피트니스 부산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한보디빌딩협회, 부산사회체육센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 부산MBC, KNN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 고등부 30명, 대학부 30명, 여자부 25명, 남자부 85명이 출전했다.



## 부산광역시배구협회

### '제71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 참가

부산광역시배구실업팀(감독 김성민)은 지난 5월 5일(목)부터 5월 11일(수)까지 7일간 경남 남해군에서 열린 '제71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부산 선수 9명은 남자 일반부에 참가했으며, 전력 점검 및 타·시도 우수팀 전력분석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 부산광역시사격협회

### '제46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출전

부산광역시사격연맹(감독 김재혁)은 지난 6월 8일(수)부터 6월 15일(수) 8일간 전남 나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46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부산선수 3명은 스킵, 10mR·T정상, 10mR·T혼합, 공기권총, 50m권총 부에서 승부를 겨뤘다. 이번 기회를 통해 2017년 사격 국가대표 선발과 상위 입상은 물론,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좋은 경험을 쌓았다.



## 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 제21회 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여성부대회

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회장 박철심)는 지난 5월 22일(일) 강서체육관 및 보조체육관에서 '제21회 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여성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자 복식에 1,768명이 참가하여 합동 퍼포먼스로 참가 내빈의 이목을 끌었으며, 멋진 경기를 이어갔다.

## 부산광역시산악협회

### '부산등산학교 제36기 하계반 수료식' 진행

부산광역시산악연맹(회장 정지택)은 지난 4월 24일(일) 금정산 남문에서 '부설 부산등산학교 제36기 하계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수료생 27명과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정지택 회장, 임원, 부산등산학교 강사 등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산광역시소프트볼협회

### '2016년도 소프트볼 전지훈련' 돌입

부산광역시소프트볼(여) 실업팀(감독 박규태)은 지난 5월 2일(월)부터 5월 8일(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 LNG 야구장에서 '2016년도 소프트볼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부산선수 11명은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를 통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전국대회 및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았다.



# 회원 종목단체 소식

## 부산광역시씨름협회

‘2016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 참가



부산갈매기씨름단(감독 김태우)은 지난 6월 5일(일)부터 6월 11일(토)까지 7일간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6 보은단오장사씨름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부산 선수는 6명으로, 개인전에 출전하여 타 시·도 선수의 전력을 점검하였다. 선수들에게는 경기력을 향상하고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는 시간이었다.

## 부산광역시유도회

제35회 부산광역시장배 종별유도대회 겸 제97회 전국 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전

부산광역시유도회(회장 송준식)는 지난 6월 5일(일) 제35회 부산광역시장배 종별유도대회 겸 제97회 전국 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유도선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유도 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 부산광역시우슈쿱협회

제26회 회장배우슈(태극권) 선수권대회 겸 제97회 전국체전 부산대표 선발전



부산광역시우슈쿱협회(회장 신천호)는 지난 6월 12일(일) 부산시체육관에서 ‘제26회 회장배우슈(태극권) 선수권대회 겸 제97회 전국체전 부산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경기는 장권, 남권, 태극권, 전통종목, 집체종목, 대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천호 부산시우슈쿱협회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장수운동으로 인식되어 사랑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 부산광역시조정협회

제9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조정대회



부산광역시조정협회는 지난 5월 21일(화)~22일(수) ‘제9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조정대회’를 개최했다. 송미현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동호인의 한마당 잔치이자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대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제1회 KOREA OPEN 줄넘기대회’ 출전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회장 이미애)는 지난 5월 21일(토)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KOREA OPEN 줄넘기대회’에 부산선수 20여 명이 참가해 개인 및 단체전에서 기량을 펼쳤다. 그 결과 3분 뛰기 3위로 입상했다.

‘제12회 협회장기 전국클럽대항줄넘기대회’ 참가

이어서 지난 5월 22일(일) ‘제12회 협회장기 전국클럽대항줄넘기대회’가 인천글로벌캠퍼스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대회 결과, 부산 선수 40명이 단체전 종합 1위(창작음악줄넘기=1위, 3인 쌍줄 스피드, 3인 쌍줄 릴레이=1위, 4인 스피드릴레이=1위, 간줄손 가위바위보=1위)는 물론, 개인전(중·고등부 2중 뛰기=대상, 일반부 2인 맞서서 뛰기=대상, 초등부 중·고등부 30초 빨리 뛰기=대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제8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줄넘기대회

제8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줄넘기대회가 6월 6일(일) 부산실내체육관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할 가운데 개최되어 멋진 플레이를 펼쳤다. 이날 약 9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줄넘기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음껏 누렸다.

## 부산광역시체조협회

‘2016년도 제71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출전

부산광역시 기계체조 실업팀(감독 윤호찬)은 지난 4월 30일(토)부터 5월 2일(월)까지 3일간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제71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부산 선수는 3명이 출전하여 대회 경험을 축적하였다.

## 부산광역시트라이애슬론협회

‘제7회 백야김좌진장군배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출전



부산광역시 트라이애슬론팀(감독 박찬호) 선수 8명은 지난 6월 11일(토)부터 12일(일) 2일간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열린 ‘제7회 백야김좌진장군배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에 개인전으로 출전했다. 선수단은 경기력 점검과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코스 적응을 목표로 대회에 참가했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 2016 초등학교 수영 교육 실시



지난 5월 부민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수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수상안전 및 수영 기초교육을 함으로써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교육을 통해 비상시 자기생명 보호능력 강화, 수영기능 습득을 통한 신체의 균형적 발달, 심폐기능 강화 등 학생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지난 5월 '2016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항목은 직원 친절도, 프로그램, 지도자의 수업내용 등 총 8문항 39항목으로 구성됐다. 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시설과 운영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앞으로도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LED 형광등 교체 및 환경정비

지난 5월에는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체육관 2층 전구를 LED 형광등으로 교체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센터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센터 주위 쓰레기, 잡초 제거를 통해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동참했다.

## 꿈나무체능단 1차 견학 및 1학기 학부모 공개수업 진행

지난 6월 10일(금) 복천박물관에서 꿈나무체능단 단원들의 1차 견학이 진행됐다. 본 행사는 단원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질서와 협동심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안전하고 즐거운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인솔교사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지난 6월 23일(목)~24일(금)에는 1학기 학부모 공개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궁금한 점도 해결하고 단원들의 생활 모습(수영, 체육, 영어교실 등)도 참관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안내



본 센터는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개강 준비에 한창이다.

접수 : 2016년 7월 4일 (월) 09:00~선착순 모집  
개강 : 2016년 8월 1일 (월)~8월 31(수)  
프로그램 : 수영, 헬스, 배드민턴, 필라테스 등(예정)

# 복구국민체육센터

## 제5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참가 시민 대상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 진행



지난 5월 20일(금)부터 23일(월)까지 3일 동안 복구의 대표적인 축제 '구포나루 축제'에 참가하여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혈압검사, 신체구성검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댄스 교실 6월 프로그램 개설



지난 6월, 지역사회의 운동 분위기 조성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스포츠댄스 교실'을 개설했다. 수업 시간은 주 2회(월·목) 13시부(초급반), 14시부(중급반) 총 2개 교실로 운영된다. 종목은 자이브, 룸바, 삼바, 차차 등 4가지로 진행된다.

## '국민체력 100 사업'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시스템, 지역 중·고등학교 연계 운영



본 센터는 화명중학교, 낙동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시스템을 6월부터 운영한다. 본 시스템은 '국민체력 100 사업'을 통해 복구 관내 청소년들의 가치 있는 신체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학생들의 신체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만족 및 행복지수 향상 등에서 가능성을 측정한다. 그 후 체력측정에서 나타나는 저체력이나 비만 또는 자신감 및 사회성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방침이다.

복구국민체육센터는 전문 체육 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어린이 수영교실 수상안전사고 대비 생존 안전교육' 실시



본 센터는 다가오는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어린이 수영교실 수상안전사고 대비 생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물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헤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은 참가자의 실력에 따라 편성된다.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전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청림<sup>韓</sup>부산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더 행복해집니다.  
부산이 더 건강해집니다.

2015년 스포츠인권 공모전 수상작  
대 상 이 용 기



행복한 운동을 위한 환경설정!  
당신이 먼저 켜 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선수의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효과!!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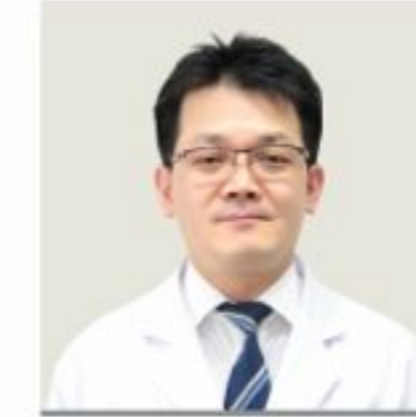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진료내용 **어깨·척추·수족부 관절센터**

어깨 회전근개 질환, 오십견, 어깨·팔꿈치 질환의 비수술 치료,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최소 침습 척수 수술, 고관절 질환, 고령자 고관절 수술, 수족부 관절 질환, 무지 외반증,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척추·수족부 관절센터 상담 T. 310-9267

첨단 의료 장비와 맞춤형 치료를 통한 기능 회복



조형래 정형외과  
진료내용 어깨·팔꿈치 질환



김형민 정형외과  
진료내용 수부 및 족부 질환



황태혁 정형외과  
진료내용 척추·고관절 질환

- **어깨·팔꿈치 질환의 수술과 재활**
  -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
  - 관절 초음파를 이용한 정밀 주사요법
  - 비수술 체외 충격파 및 고주파 요법
  - 맞춤형 재활을 통한 조기 복귀 지향
- **수족부 질환의 미세수술**
  - 수부 골절과 인대 손상
  - 손목 통증, 터널 증후군
  - 무지 외반증의 교정술
  - 신경 성형술, 골관절 중앙
- **척추·고관절 질환의 최소 절개수술과 비수술요법**
  - 영상 장치를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 풍선확장기능을 포함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술
  - 노인성 고관절 골절의 선택적 수술
  - 고관절 무혈성 괴사, 인공 고관절 수술

좋은삼선병원의 어깨·척추·수족부 관절센터는 첨단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한 진단에 의해 퇴행성 또는 외상성 관절 질환을 치료합니다. 질병의 상태에 따라 수술과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여 질병의 치료기간을 단축 시키고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진료내용 **무릎관절·스포츠의학·운동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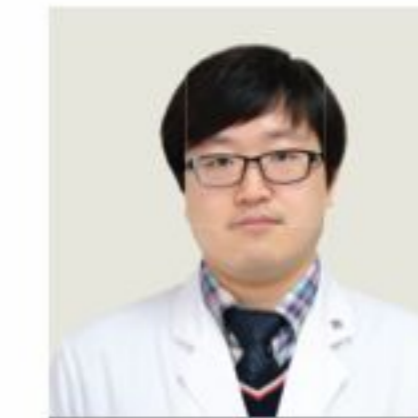
퇴행성 무릎 관절질환, 인공관절 수술, 무릎 십자인대·반월상 연골 질환,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술, 관절 내시경 연골 이식, 스포츠 손상의 치료와 종목별 재활, 스포츠 운동 기능 평가

무릎관절·스포츠의학·운동치료센터 상담 T. 310-9535

무릎 관절 질환과 스포츠 손상의 정밀한 수술과 운동재활 요법



왕태현 정형외과  
진료내용 무릎 관절·인공관절



박기봉 정형외과  
진료내용 무릎관절·관절 내시경



진홍기 정형외과  
진료내용 건주관절

- **무릎 관절 질환의 단계적 치료**
  -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수술
  -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
  - 무릎 절골술을 이용한 관절 보존
  -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한 맞춤형 수술
- **연골결손의 관절 보존**
  - 외상성 무릎 질환의 수술과 재활
  - 관절내시경 십자인대 재건 수술
  - 자가연골이식, 재생, 줄기세포 치료
  - 컴퓨터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수술
- **스포츠 손상의 수술과 재활**
  - 급만성 스포츠 관절 손상의 수술과 재활
  - 스포츠 손상의 정밀 초음파 진단과 시술
  - 무릎, 발목 다발성 인대 손상의 수술
  - 운동 장치를 이용한 재활 중점 치료

좋은삼선병원의 무릎관절·스포츠의학·운동치료센터는 스포츠 손상을 손상 부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활 요법과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무릎 관절 질환을 연골 손상의 정도와 나이에 따라 비수술 요법, 무릎 관절 절골술, 부분 또는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 >> 내과(소화기 송철수 이태영 박미정 정정임 윤종민 이진성 / 호흡기 윤늘름 / 순환기 이일 유정남 / 신장 이우철 강효진 / 내분비 최영근), 외과 김호영 전명진 장종익 신부인과 박성우 방재희, 소아청소년과 민상기 정영희 배운진, 정형외과 김형민 조형래 황태혁 왕태현 박기봉 진홍기, 흉부외과 박기우, 이비인후과 이일우, 정신건강의학과 정형모, 신경과 박영혁, 신경외과 권위현 정재원, 비뇨기과 남형중 안재현, 가정의학과 송영권, 재활의학과 강민성, 직업환경의학과 윤성호 이영일, 안과 김미선, 치과 박재형 이세희, 영상의학과 김윤주 김양숙 김상수 김정근, 마취통증의학과 김상보 채명길 류성훈, 진단검사의학과 이용성, 병리과 이진숙, 응급의학과 김유연 이재훈 박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TEL. 051-322-0900 / www.samsun.or.kr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좋은삼선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힘찬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 무릎 · 어깨 · 허리 아플 때?

보건복지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유효기간 : 2014.10.07~2018.10.06

강남힘찬병원  
강북힘찬병원  
강서힘찬병원

## 부산 힘찬병원

목동힘찬병원  
부평힘찬병원  
인천힘찬병원  
창원힘찬병원

동래 수안역 7번 출구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55  
매주 화 · 목 8시 야간진료 ☎1899-255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5707-중-74848호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굿윌치과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The date of issue 20160609



# 테니스를 쳤는데 입으로 받았다!



## 치과가 필요할때... 굿윌치과병원



굿윌치과병원\_덕천 | 굿윌치과병원\_하단 | 굿윌치과병원\_서면  
051) 330.6000 | 051) 209.6000 | 051) 606.6000



#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수준 높은 진료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47,300㎡의 규모와 750개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

3.0T MRI, 128채널 MDCT 등 첨단장비 가동

부산대학교병원 협력진료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직접 진료하는 병원

EMR 등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첨단 디지털 진료환경 구축

특성화 · 전문화된 센터중심 전문병원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평생 건강 주치의로 지속적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센터

특성화된  
전문센터  
병원

- 건강증진센터
- 소화기센터
- 인공신장센터
- 인공관절센터
- 재활센터
- 복·흉강경수술센터
- 심혈관센터
- 장애인치과센터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의료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부산의료원**  
BUSAN MEDICAL CENTER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www.busanmc.or.kr T. 051.507.3000

## ULTIMATE HIGH SPEED BLENDER AXLERIM

### HAPPYCALL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해피콜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 해피콜 초고속블렌더 엑슬림

초고속 블렌더 엑슬림은 초당 400회전 이상의 압도적 블렌딩으로 각종 과일이나 잎채소, 섭취가 어려웠던 검정콩과 같은 곡물 및 근뿌리까지 짧은 시간에 통째로 갈아내어, 식이섬유를 포함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건강음료, 목넘김이 부드럽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웰빙주스를 손쉽게 집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 2.5마력의 강력한 슈퍼 uAC모터
- 최적화된 오토블렌딩 모드
- 고강도 420J2 STS 블레이드
- 친환경 BPA-Free 트라이탄 용기
- 통 스테인레스 스틸 엑슬림
- 공기순환 쿨링 써클레이션 시스템

**HAPPYCALL**



# In My MOBILE sumbank

금융과 유통이 만난 신개념 모바일 전문은행  
포인트 하나까지도 관리해주는 새로운 금융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BNK부산은행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썸뱅크 홈페이지(www.sumbank.co.kr) 및 고객센터 1800-0500으로 문의 바랍니다.

**BNK** 금융그룹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 PARKLAND

가볍고 시원한  
파크랜드 라이트 재킷

가벼운 소재와 편안함, 스타일까지  
파크랜드 아이스플러스 라이트 재킷이  
시원한 여름을 선물합니다

### Ice Plus<sup>+</sup>

파크랜드 아이스플러스는 냉감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항상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냉감&웰빙 상품군입니다



PARKLAND

CABRINI

J.HASS

PRELIN

PL SPORTS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옷의 가치, (주)파크랜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입니다